

보성 녹차 ‘K-말차’ 열풍 타고 제2부흥기 연다

프리미엄 웰니스 식품 각광 완판 행진
올해 수매 246t 전량 판매·계약 체결
80억원 투입 스마트·기계화 생산성 ↑
APEC 한중 정상회담 제공 품귀 현상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프리미엄 웰니스 식품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대한민국 녹차 수도 보성군이 차(茶) 산업의 ‘제2부흥기’를 향한 도약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글로벌 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대한민국 차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국내 차 생산량의 34%를 책임지는 최대 주산지답게,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우선 ▲스마트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 ▲기계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이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 달모원에서 보성말차 신제품과 보성물 홍보가 진행되는 모습(사진 위)과 북채 ‘그린다향’ 카페에서 판매하는 롤케이크, 말차빙수 등 보성 말차 제품.

〈보성군 제공〉

화 수확이 용이한 평지형 다원 조성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 전방을 과학화·표준화하며 경쟁력을 극대화했으며, 유럽과 미국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 유기 인증 면적을 80ha까지 확대해 까다로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를 맞췄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됐다. 실제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지난 2014년 100.3kg에서 올해 127.8kg으로 10년 새 약 27%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증명했다.

품질 경쟁력은 국제무대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열린 ‘2025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 후식으로 보성 녹차가 공식 제공되며 한국 차의 품격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실 다지기는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맞물려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보성물·우체국쇼핑)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탄

탄히 다져왔는데, 최근 말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녹차 제품 전반의 판매량이 수직 상승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의 찾임을 수매해 이중 약 80%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겼으나, 올해는 수매한 246t 전량이 즉시 판매되거나 계약이 체결했으며 전년도 이월 재고 또한 모두 판매가 완료됐다.

이에 보성군은 해당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녹차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말차 열풍과 세계 식품 시장의 변화는 보성 차에 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며 “보성 차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2의 부흥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병원-119-지자체’…순천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표준진료 워크숍 성료
진료 흐름 시뮬레이션 기반 재현
전원체계·협력 프로토콜 논의도

순천시는 ‘병원-119-지자체’가 원팀이 되는 순천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 표준 진료 교육 및 협진 워크숍(별칭·투게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교육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순천·여수·광양 등 중진료권 응급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와 전남소방 119 구급대원 등 총 150명이 참여해 지역 응급의료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김재혁 센터장을 비롯해, 이두환 주임과 장, 노종갑 응급중환자실장, 순천소방서 남윤길 소방위가 각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 응급실 경력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8명이 시뮬레이션 실습 강사로 배치돼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의료진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재혁 센터장과 응급의료진들이 응급시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교육과정은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뇌출혈·뇌경색 등 심뇌혈관 응급질환부터 다발성 골절, 긴장성 기흉 등 중증외상까지 실제 응급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환자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후 단계부터 응급실 도착, 진단, 치료에 이르는 실제 진료 흐름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재현해 의료진이 골든타임 내 대응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과 함께 진행된 협진 워크숍에서는 병원 119 지자체가 함께 중증 환자 전원체계와 협력 프로토콜을 논의하며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졌다.

시는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진료 방식이 표준 프로토콜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시민이 어느 응급실을 방문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고도화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장의 실무진이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며 “내년에는 더 촘촘한 협진 구조를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순천형 응급의료체계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정기 기자



장성군 귀농·귀촌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도 종합평가 대상 창업 지원 등 호평
내년 ‘지원센터’ 준공 영농 정착 박차

장성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귀농·귀촌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귀농 창업 자금 융자 실적 ▲지역민 융화 사업 추진 등 10개 항목 1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장성군은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여울림 마을 조성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등에서 높은 참여도와 성과를 인정받아 고득점을 기록했으며, 체계적인 귀농 학교 운영

과 실질적인 영농 정착 지원 정책이 귀농 인구 유입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현재 군은 초기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소모성 자재 구입비, 주택 수리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을 위한 1대1 현장 실습 교육과 6차 산업 진흥 지원 등은 초보 농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군은 내년 북이면 달성리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준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창업 활성화 및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장성에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유자 등 과수 경쟁력 성과 ‘점점’
기술보급 종합평가회 수출단지 등 분석

고흥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범사업 참여 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유자연구소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과수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내용과 발표와 종합 토의, 현장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는 유자연구소가 중점 추진한 ▲수출용 프리미엄 유자 생산단지 구축 ▲수출용 복숭아 선도 유자 신기술 적용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현장 평가에서는 시범사업 현장 4개소를 직접 방문한 참석자들이 ▲유자 공정육묘 생산 시스템 ▲이상 기상 대응 유자 안전생산 기술 ▲국내 육성 품종 단감 ‘감풍’ 재배단지 등을 둘러보며 기술 적용 현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 산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과 재배예방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여수 웅천국민체육센터, 22일부터 시범 운영

내달 10일까지 수영장 우선 개방
시민 의견 수렴 후 내년 정식 개관

여수 웅천국민체육센터가 내년 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먼저 문을 연다.

14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주간 웅천국민체육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 운영은 정식 개관 전 수영장을 우선 개방해 수질과 안전, 이용 동선 등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다만, 수질 관리와 안전 점검을 위해 하루 세 차례(오전 8시-8시30분, 정오-오후 1시, 오후 6시-7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

이용 대상은 여수 시민(성인·청소년)이며, 선착순 입장해 2시간 동안 자유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요금은 일일권 체계가 적용된다.

여수시 웅천중앙로 106에 위치한 웅천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06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25mx4레인)과 다목적 체육관, 사위실, 탈의실 등을 갖춘 최신식 체육 시설이다.

송병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체육 공간을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대숲맑은 담양쌀, 영국 식탁에 오른다

트리스톤 계약…초도 물량 선적
팔기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도

대숲맑은 담양쌀이 영국 식탁에 오른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담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담양RPC)이 영국 외식·유통업체 트리스톤과 대숲맑은 담양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사진〉

이번 수출은 지난 9월 담양군과 담양RPC가 영국 업체 측과 연간 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추진된 해외 판로 확대 노력의 첫 성과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

대상 수상과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 선정 등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왔으며, 유럽 시장 요구에 맞춘 GAP 인증시설과 도정 시스템을 갖춘 담양군통합RPC가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은 프랑스와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 경쟁에 최근 높아진 한식 선호 흐름이 더해지며 영국 공급 계약이 팔기 등 담양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 농특산물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 간문초, ‘아나바다’ 수익금 59만원 기탁

구례군은 “최근 구례 간전면 간문초등학교에서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실시일반 마련한 성금 59만2천800원을 간전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주도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며 자원 순환의 가치를 배우고, 교직원들도 이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절차를 거쳐 간전면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황미경 간전면장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